

코로나 불황 넘어선 브랜드 파워... 갤럭시·비스포크 '힐힐'

SAMSUNG

갤럭시S21 예년보다 이른 출시 57일만에 판매량 100만대 돌파 디자인 앞세운 비스포크 好실적 반도체 아쉬운 성적... 3조 중반대

삼성전자가 1분기 호실적을 거둔 데에는 스마트폰 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S21을 예년보다 2달여 빨리 출시한 덕을 톡톡히 봤다. 출시한지 57일만에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하면서 전작의 부진을 떨쳐낸 것.

지난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시장이 최근 들어 회복세로 돌아선 영향도 컸다. 기본 모델 가격을 전작보다 크게 낮은 99만원대로 낮추면서 다소 위축된 소비 심리를 공략한 것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중저가폰인 갤럭시A 시리즈도 실적 향상에 힘을 실어줬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성장한데 더해, 중국 화웨이 등이 주춤한데 따른 반사이익을 봤다.

아울러 웨어러블 기기기도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추정된다. 갤럭시 워치와 버즈 등 제품들이 빠르게 보급률을 높이는 상황,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덕분에 IM사업부 실적에도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IM사업부 부문 영업이익 예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갤럭시S21을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상치는 4조원 초중반대다. 전년 동기(2조6500억원), 전분기(2조4200억원)보다 2배에 가까운 성장이다. 지난해 시장 위축에 애플 아이폰12 출시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갤럭시S21 조기 출시 전략을 성공시키면서 다시 실적을 원상대로 회복했다.

가전 사업도 1조원 초중반대 영업이익이 유력하다. 전년 동기(4500억원) 대비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전 시장 성장 영향이 컸다. 전세계적으로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가전 수요가 크게 늘었고, 식기세척기 등 신가전 시장도 대폭 성장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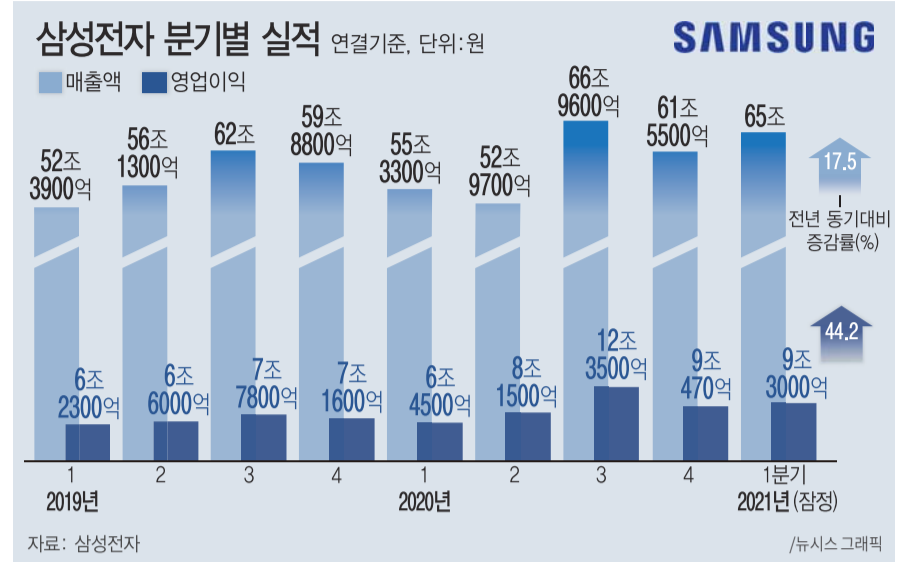
특히 디자인을 앞세운 '비스포크' 브랜드가 실적 향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테리어 열풍에도 비스포

크가전이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 지난해부터 경쟁사들도 유사 제품을 론칭할 만큼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TV 사업도 여전히 글로벌 1위를 유지하며 꾸준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형 TV 수요가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는 도쿄 올림픽 기대감 등에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효자 분야였던 반도체 사업은 이번에는 실적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파운드리 시장 확대 등 슈퍼사이클 효과가 있긴 했지만, 실제 성적은 3조원 중반대로 전년 동기(3조9900억원)나 전분기(3조8500억원)에 비해 주춤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 중단이 가장 치명적인 악재로 꼽힌다. 업계에서 예상하는 피해 규모는 3000억원 수준. 그나마 최근 가동을 재개했지만, 정상



자료: 삼성전자

/뉴시스 그래픽

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비용이 늘어난 것도 실적에는 악영향이다. 3세대 10나노(1z) D램 공정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중국 시안 2공장도 새로 가동하면서 초기 비용이 실적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디스플레이 부문도 일부 성장기대와 달리 예전과 비슷한 4000억~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단, 반도체는 2분기부터 슈퍼사이클 효과를 본격적으로 받으며 삼성전자 실적 중심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오스틴 공장을 포함해 1z D램 등 신공정이 안정화될 전망이다.

특히 2분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더 빨라지면서 수익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 서버용 D램 고장거래가격이 1분기보다 20%나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IM 부문은 이익 하락이 불가피

하다. 갤럭시S21 출시 효과가 줄어드는 데다가, 갤럭시Z폴드3 등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는 영향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중저가 시장을 대폭 확대하며 오히려 실적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놓고 있다. 갤럭시 A52와 A72, A82 등 고성능 보급형 모델 출시를 준비하는 상황, LG전자도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국내외 북미 등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예상이다.

변수는 글로벌 경제다. 미중무역분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공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컨트롤 타워를 잃은만큼, 발빠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생활가전 매출만 6兆 이상... 12년만에 분기실적 새 역사

LG전자

오브제 컬렉션·올레드TV 好실적 2분기엔 모바일 사업철수 실적 반영

LG전자가 12년만에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새로 쓸 수 있었던 것은 단연 가전 사업 덕분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LG전자 H&A(생활가전) 사업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동기(5조4180억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19년 5조원대에 돌입한지 2년만에 다시 한 번 앞자리수를 바꾸는 것.

영업이익도 8000억원으로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 달성이 유력하다.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지켜온 7000억원대를 다시 한 번 돌파하는 셈이다.

새로운 기록을 달성케 한 주역은 단연 오브제 컬렉션이 꼽힌다. 오브제컬렉션은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색상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삼성전자비스포크와 비슷한 콘셉트지만, 더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해 경쟁력을 높였다.

TV 사업인 HE(휴먼터테이먼트)도 1분기 높은 실적을 거두면서 전체 실적 상승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



LG 오브제컬렉션 체험존. /LG전자

출액이 전년 대비 30% 가량 상승한 2조 3000억원 수준,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3258억원)보다는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다.

올레드 TV가 실적 상승 주인공이다. 코로나19로 집콕족이 늘어나는 상황, 유럽과 일본 등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꾸준히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가격 하락에 따른 보급도 속도를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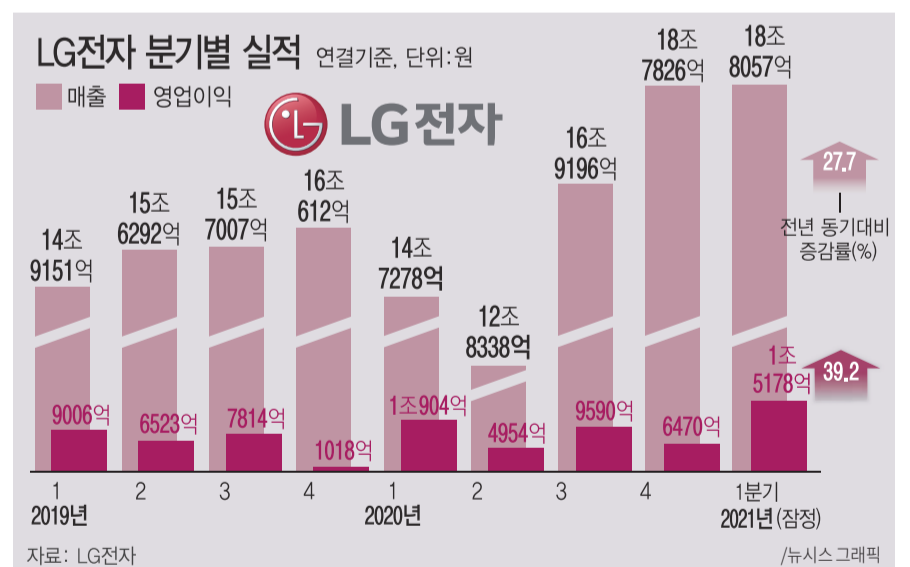
나노셀 TV도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다. 나노셀 TV는 QLED TV에 대응해 개발된 프리미엄 LCD TV다.

VS(전장) 부문은 적자폭을 줄이며

흑자 전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업계가 지난해 말부터 생산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LG전자 전장 사업 핵심 분야인 전기차 비중도 크게 늘어나면서다.

지난해 1분기 전장사업은 매출액 9986억원에 영업손실 237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2분기에도 손실규모가 2025억원에 달했지만, 3분기에는 662억원, 4분기에는 20억원으로 대폭 줄이면서 연간 적자를 3675억원으로 막아냈다. 코로나19에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최근 자동차 업계에 몰아친 반도체 공급난은 악재다. 올 초부터 GM을 비롯한 주요 거래 업체들이 반도체



자료: LG전자

/뉴시스 그래픽

부족을 이유로 잇따라 감산을 결정했다. 때문에 1분기 VS사업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MC(모바일) 사업은 적자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했거나, 오히려 더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올 초 스마트폰 사업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소비자 구매 심리도 크게 줄어든 탓이다.

2분기부터는 모바일 사업 철수가 실적에 반영되는 만큼, LG전자 영업이익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모바일 사업 적자 규모가 분기 기준으로 2000억~3000억원 수준. 매출액이 10% 가까이 줄어드는 대신, 영업이익은 1조원 중후반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TV 사업도 호재가 많다. 올레드 TV가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는데다가, 미니 LED TV인 QNED TV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경쟁사 점유율을 일부 뺏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도쿄 올림픽도 여름 개최될 예정이어서 수요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장 사업은 반도체 공급난 해소가 관건이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잇따라 생산 감산에 나섰다지만, 여전히 공급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LG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흑자전환 달성 기대는 여전히 높다.

/김재용 기자